

자유발표

성격의 선천적 요인(MBTI)과 후천적 요인(PAT)의 관계특성 연구

오수희*

1. 서 론

상담에서의 초기면접은 클라이언트와 첫 번째 접촉으로서 상담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¹⁾ 하지만 임상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 각각의 성격적 특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클라이언트와 초기저항²⁾에 부딪칠 수 있으며, 임상사회사업가 자신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이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최근 초기면접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성격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상담개입방법으로 마이어스-브릭스 유형척도(Myers-Briggs Type Indicator 이하 MBTI라 칭함)라는 도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³⁾ MBTI는 선천적인 심리태도와 심리기능의 선호성을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 이론에 입각하여 클라이언트들이 호소하는 심리문제에 대하여 MBTI유형별로 선호성과 취약성, 주기능·보조기능·열등기능·개별화 등의 맥락에서 치료를 전개한다.

그러나 MBTI에서 제기되는 아동기의 경험이해는 상기된 범주 내에서 이해하려고 하나 그 개념이 너무 일반적이고 모호하여 가끔 합리성이 결여된 추측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MBTI에 입각한 아동기 체험의 현재적 이해는 각 개인의 심리유형에 따라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동기의 후천적 경험이 선천적 요인(MBTI)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아동기에 어떤 성격적응유형(Personality Adaptation Type, 이하 PAT로 칭함)을 갖게 되었으며, 그 적응유형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성격적응이론(PAT)은 출생 후 초기 5년 동안에 걸쳐 후천적 요인이 성격형성에 절대적인

* 충실대학교 학생지도상담소 상담실장,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겸임교수

1) 이장호(1990; 1).

2) 김용일·조홍식·김연옥(1996; 177).

3) 김정택·심혜숙·제석봉 편역(1995; 7-12).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론적 입장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는 각 개인이 태고 난 선천적 요인이 후천적 요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하여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추측하는 선천적 요인은 다분히 생리적 요인이며, 후천적 요인으로 인간의 어떤 행동을 설명하지 못할 때 막연히 선천적 요인으로 귀착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의 절충적 관점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BTI와 성격적응유형간의 관계를 파악한 뒤,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성격유형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초기면접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와 상담할 때 클라이언트의 성격유형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접근을 함으로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초기 상담 개입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MBTI의 16가지 심리유형과 6가지의 성격적응유형 간에 상관관계 여부를 탐색하고자 한다.
- 2) 위의 조사결과에서 유의미한 관계성이 있는 성격유형을 대상으로 각 성격유형에 따라 개방문, 표적문, 함정문으로 개입방안을 정리한다.

3. 용어의 설명

성격에 있어서 선천적 요인의 분석틀로는 MBTI를 후천적 요인의 분석틀로는 PAT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용어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이 검사는 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하여 Catherine Briggs와 Isabel Myers가 보다 쉽고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심리유형지표다.

(2) PAT(Personality Adaptation Type)

이 검사는 Paul Ware에 의하여 정립되고 Vann Joines에 의하여 발전되었으며, 모든 개인은 그들의 아동기 생활경험에 따라 정신분열성적(Schizoid) 성격적응유형, 반사회성적 (Antisocial)

성격적응유형, 편집성적(Paranoid) 성격적응유형, 수동-공격성적(Passive-Aggressive) 성격적응유형, 강박-신경성적(Obsessive-Compulsive) 성격적응유형, 히스테리성적(Hysteric) 성격적응유형과 같은 여섯 가지 기본성격적응유형을 선택하게 된다.

4. 선천적 요인으로서의 MBTI

1) 용의 심리유형

성격 패러다임의 발달을 논함에 있어서 용의 업적을 들지 않을 수 없다.⁴⁾ 용은 경험을 바탕에서 얻은 그의 가설을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신사(精神史)에 나타난 유형론과 비교·검토하면서 유형론을 제창한 사람들을 자신의 유형론에 비추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자신과 프로이드(Freud), 아들러(Adler)가 같은 자료를 보면서도 왜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는가에 관해 의문점을 가졌으며, 프로이드는 외향성, 아들러는 내향성의 성격인 것처럼 “인간이 각기 다른 심리유형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⁵⁾

용의 외향성은 히스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내향성은 불안, 반응성 우울증, 공포증 그리고 강박신경증을 포함하는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⁶⁾. 용의 주장에 따르면 외향성이 신경증적 장애를 받게 되면 히스테리, 내향성이 신경증적 장애를 받게 되면 정신 쇠약이 된다고 한다. 외향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히스테리이고 내향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신경쇠약이다. 이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낀다.⁷⁾ 그리고 수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외향성이나 내향성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향성·외향성이라는 보편적 분류 외에 그 하위분류체계인 각 개인의 심리적 기능에 따라 인간의 차이점이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이로써 용은 의식 속에 네가지 심리적 기능, 곧 사고·감정·감각·직관을 제시하였으며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으로 구성된 용의 심리학 이론은 더욱 심오하고 복잡한 측면을 갖게 되었다. 이는 심리유형이 단순히 의식의 영역에서 행동이해를 하는 도구가 아니고 무의식과 관계된 성격체계에서 이해될 때 심리치료이론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⁸⁾

4) 이현수(2001; 260)

5) E. A. Bennet(1983; 59).

6) 이현수, 전계서, p. 27.

7) *Ibid.*, p. 28.

8) 이부영(2000; 143).

융의 심리유형론은 의식의 구조, 각 기능의 유형 및 무의식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심리적 경향이 가지는 구조간의 동적인 관계를 파악하려 하였다.⁹⁾ 융은 심리적 태도(E·I)나 기능(S·N·T·F)의 의식적, 무의식적 표현에는 이 양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¹⁰⁾ 의식의 차원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지고 잊어버려진 기억들을 의식화시켜 성격의 건전한 기능을 회복시킴을 심리치료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 심리유형의 무의식 차원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열등기능의 중요성이 MBTI에서 부각된다. 임상사회사업자가 MBTI를 활용하여 상담을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다.

2) MBTI와 심리상담

MBTI는 심리상담 영역에서 많은 활용이 가능하다. 상담에서 MBTI의 활용은 학업지도, 학습방법상담, 직업상담, 부부치료, 가족치료, 기타 관계치료와 같은 단기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뿐 아니라 보다 폭 넓은 생애의 상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되어있다.¹¹⁾

MBTI를 활용한 상담영역에 관련된 중요문제에 대해서 프로보스트(Provost)는 유형발달과 관계되어 상담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¹²⁾ 첫째, 심리기능의 정상적인 발달이 환경적, 상황적 요인들에 의하여 어떤 방해를 받았으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둘째, 심리기능발달의 양태는 어떤 것이었으며, 그것이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셋째,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심리기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어떤 기능들을 선호하고, 어떤 기능에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어떤 기능을 피하고 있는가? 그 결과가 문제성을 지니고 있는가? 넷째, 상담가와 클라이언트는 주기능이나 네 가지 기능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균형 잡힌 성격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한 기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절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등을 질문하고 있다. 프로보스트는 인생항로, 환경적 상황 등이 어떤 개인의 심리기능 중 어떤 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다. 개인은 자신의 선호경향이 있지만 환경의 영향이 어떤 기능을 먼저, 어느 정도로 발전시키느냐에 크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결국 선천적인 경향성이 후천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¹³⁾

9) C. G. Jung(1968; 8-9).

10) *Ibid.*, p. 9.

11) 김정택, 전계서, p. 95.

12) J. A. Provost, *A Casework: Application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 Counseling*. (Geinsville, FL : CAPT, Inc) 1984. p. 3.

13) 박종삼, 전계서, p. 33에서 재인용.

5. 후천적 요인으로서의 PAT

1) Paul Ware의 성격적응이론

정신의학의 인격장애 이론에서 출발하여 웨어(Paul Ware)는 성격유형들과 각 유형에 따른 심리치료적 접근방법을 소개하였다.¹⁴⁾ 그는 정신병리와 부적응을 여섯 개의 범주로 측정하였는데 분열성적(Schizoid), 반사회적(Antisocial), 편집성적(Paranoid), 수동 - 공격성적(Passive-Aggressive), 강박 - 신경증적(Obsessive-Compulsive), 그리고 히스테리성적(Hysteric) 심리적응을 기술하고 있다. 웨어는 입원한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상기한 여섯 가지 적응유형을 최초로 관찰하게 되었다.

(1) 성격적응의 개념

웨어는 아동기에 자신의 가족 안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의 경험에 따라서 모든 개인에 적합한 여섯 가지 기초유형의 성격 적응을 제시하였다.¹⁵⁾ 어떤 개인은 이런 적응유형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적응유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전통적으로 나타내는 정신병리의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적응유형'이란 건강정도나 병리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적응스타일을 의미한다.

조인스¹⁶⁾는 전통적인 성격적응의 용어가 부정적인 병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격적 명칭을 적응의 특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바꾸어 제시하고 있다. 그 여섯 가지는 : 정신분열성적(Schizoid) 대신에 창의적 백일몽자(Creative-Daydreamer), 편집성적(Paranoid) 대신에 현명한 회의자(Brilliant -Skeptic), 반사회성적(Antisocial) 대신에 매력적 조작자(Charming-Manipulator), 수동공격성적(Passive-Aggressive) 대신에 명랑한 저항자(Playful-Resister), 강박신경성적(Obsessive-Compulsive) 대신에 책임성있는 일중독자(Responsible-Workholics), 히스테리성적(Hysterics) 대신에 열광적인 과잉반응자(Enthusiastic Overreactors)¹⁷⁾이다.¹⁷⁾ 이상의 여섯 가지 적응유형 중 정신분열성적적응, 편집성적 적응, 반사회성적 적응은 출생 후 3년 동안 부모가 아동과 상호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아동이 반응하면서 형성하는 적응유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차적 적응(primary adaptation)'이라고 한다.¹⁸⁾

14) P. Ware. *op. cit.*, p. 15.

15) *Ibid.*, p. 13.

16) V. Joines(1986; 153).

17) *Ibid.*, pp. 153-160.

이 시기의 성장·발달과제는 ‘생존적응(survival adaptation)’이며, 모든 아동은 이 세 가지 적응유형 중 최소한 위협을 받게 되면 이러한 적응유형으로 퇴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 3년(4세-6세)기간의 성장·발달과제는 부모들이 아동에게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강조하게 된다. 이 시기의 적응유형은; 수동·공격성적 적응(Passive-Aggressives), 강박·신경성적(Obsessive-Compulsive) 그리고 히스테리성적 적응(Hysterics)이라는 ‘이차적 적응(secondary adaptation)’으로 인정 적응(recognition adaptation)이 나타난다.¹⁹⁾

아동은 이런 이차적 적응유형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적응유형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도 일차적 적응유형과 같이 어른이 되어 취약성이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이차적 적응유형으로 퇴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후천적 성격적응유형의 형성은 부모의 양육방법에 대응하여 아동이 어떻게 적응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테, 이때 이런 후천적 요인들이 아동이 태고난 선천적 요인들과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부모의 양육방법과 PAT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른 성격적응 유형은 <표-1>과 같이 6가지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방법에 따라서 1차적 적응에서 3가지로, 그리고 2차적 적응에서도 3가지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즉, 부모의 양육방법인 ‘임시지향적’, ‘일관되지 않은’, ‘아이와 악전 고투적인’, ‘성취강조적’, ‘타인을 기쁘게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²⁰⁾

<표-1>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른 성격적응 (긍정적·부정적)

	성격적응유형	부모 양육 스타일	긍정(+)	적응 스타일
			부정(-)	
생존적 적응 (0-3세)	정신분열성적 성격적응유형	임시(파소)	+	협조
			-	철수
	반사회적 성격적응유형	예상(파잉)	+	촉진
			-	반기
	편집성적 성격적응유형	비밀활 (파소+파잉)	+	조심
			-	의심

18) *Ibid.*

19) *Ioc. cit.*

20) P. Ware, *op. cit.*, p. 20.

<표-1> 계속

	성격적응유형	부모 양육 스타일	긍정(+)	적응 스타일
			부정(-)	
성취적 적응 (3-6세)	수동-공격성적 성격적응유형	통제	+	노력
			-	고집
	강박-신경증적 성격적응유형	성취 강조	+	성취
			-	과잉성취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	타인을 기쁘게 하라	+	반응
			-	과잉반응

(3) PAT의 특질과 표현

웨어(Ware)는 그의 “성격적응”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표-2>와 같이 여섯 가지의 성격적응유형을 특질과 행동묘사로 발표하였다. 그는 이런 행동적 특성들이 선천적 요인들과 후천적 요인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후자의 경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특질은 성격 자체를 기술하는 것이고, 묘사는 성격에서 우발되는 행위 또는 행동을 기술하는 것이다.

<표-2> 성격적응유형의 특질과 표현

성격적응유형	성격 특질	행동표현
정신분열성적 성격적응유형	철수하는 수동성, 몽상가, 기피, 분리	수줍음, 과민한, 별난, 괴僻스러운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유형	사회와 갈등, 좌절을 견디기 힘든, 홍분과 드라마를 추구	이기주의, 냉담한, 무책임성
편집성적 성격적응유형	경직된 사고, 과장, 투사	과민증, 의심하는, 질투하는, 시기하는
수동-공격성적	공격적인 성격, 분개	방해하는, 고집센
강박-신경성적 성격적응유형	순응성, 양심성	완벽주의자, 과잉으로 억제된, 과잉 양심적인, 과잉 충성심, 긴장된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	홍분성, 정서적인 불안정성, 과잉반응성, 극적인, 주의를 끄는, 매력적인	미성숙한, 자기중심적, 허영적, 의존적

출처: Paul Ware, “Personality Adaptation (Door to Therapy)”, Journal of Transactional Analysis. Vol. 13, No. 1, (1983).
p. 13.

(4) PAT에 따른 문제해결태도와 타인과의 관계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성격적응유형간에 문제해결태도와 타인과의 관계면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 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성격적응유형에 따른 문제해결태도와 타인과의 관계²¹⁾

성격적응유형	문제해결태도	타인과의 관계
정신분열성적 성격적응유형	수동	철수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유형	수동<능동>	활동<철수>
편집성적 성격적응유형	수동<중립>	철수
수동·공격성적 성격적응유형	수동	활동
강박·신경성적 성격적응유형	능동	철수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	능동	활동

출처: 박종삼, 1999.

(<>는 그러한 경우도 있음을 나타낸다)

2. PAT에 따른 개입측면

1) 개방문, 표적문, 함정문의 개념

각 성격적응 유형이론에서는 성격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개입측면이 있다. 가장 효율적 의사소통이 되는 통로를 개방문(Open Door)이라 하며, 의사소통을 패쇄시키는 통로를 함정문(Trap Door)이라 한다. 성격의 변화는 개방문을 통해 제 3의 의사소통 통로인 표적문(Target Door)으로 들어가 그 부분을 변화시킬 때 성격이 변화된다고 본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 (1) 개방문 : 개인이 세상과 가장 잘 접촉하기를 선호하는 측면 (Open Door)
- (2) 표적문 : 개인들의 성격 중에서 없애야 할 필요성이 있는 모난 성격의 특수한 측면으로 성격치료의 표적으로 삼는 측면 (Target Door)
- (3) 함정문 : 개인의 가장 강력한 방어기제가 있는 측면 (Trap Door)

21) 박종삼(편저), 『임상교류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한국교류분석연구소, 1999), pp. 226-241.

<표-4> 성격적응유형에 따른 개입

개방문	표적문	함정문
개인이 세상과 접촉하는 곳 임상사회사업가가 처음으로 접촉해야 하는 부분이다.	개인들의 성격 중에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특수한 측면 상담의 변화목표가 되는 부분이다.	스스로 변화시키겠다는 노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 상담시에 접촉되면 상담진행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개방문, 표적문을 통해 상담이 잘 진행될 경우 변화가 가장 크다.
→	→	

2) PAT에 따른 개입측면

PAT에 따른 개입측면은 사고(Thinking), 감정(Feling), 행동(Behavior)으로 개입할 수 있다. (T : 사고, F : 감정, B : 행동)

<표-5> 각 성격적응유형에 따른 개입문, 표적문, 함정문

성격적응유형	개입문		
	개방문	표적문	함정문
정신분열성적 성격적응유형	B	T	F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유형	B	F	T
편집성적 성격적응유형	T	F	B
수동-공격성적 성격적응유형	B	F	T
강박-신경성적 성격적응유형	T	F	B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	F	T	B

출처: Paul Ware, "Personality Adaptation (Door to Therapy)", Journal of Transactional Analysis. Vol. 13, No. 1, 1983. p. 18.

6.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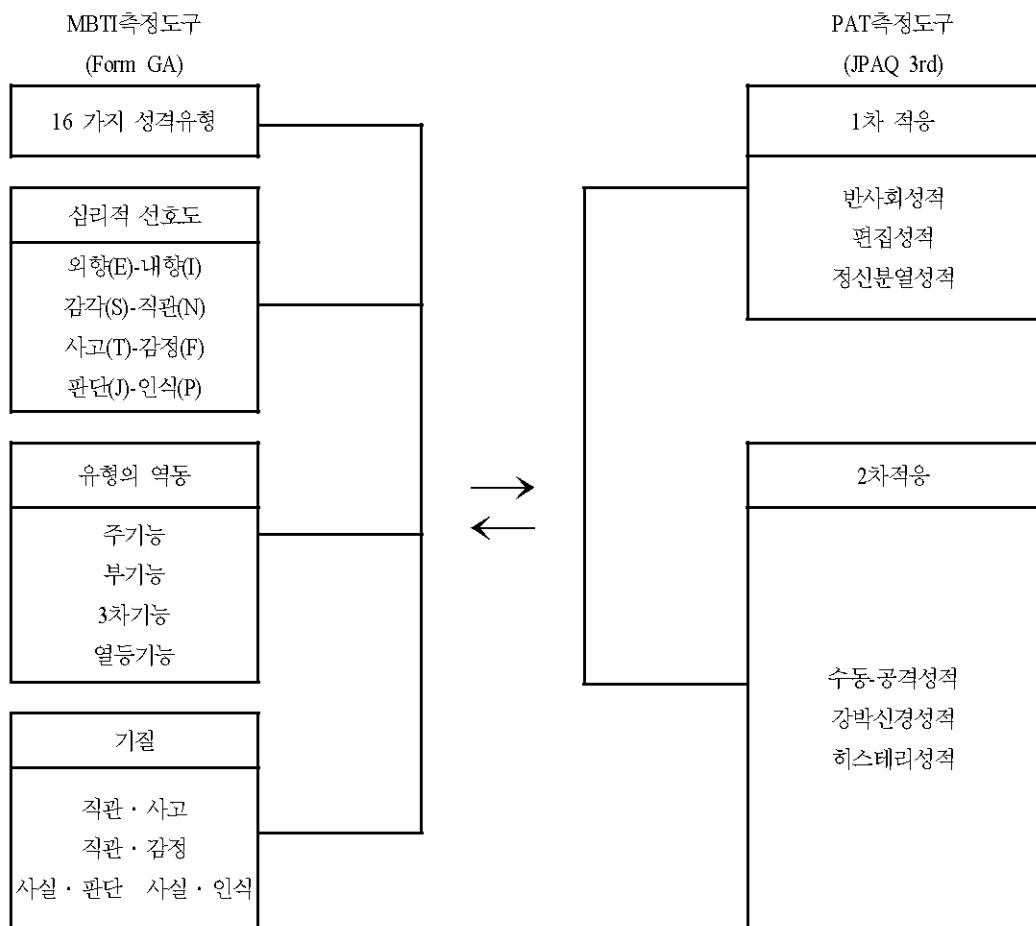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MBTI(Form GA)²²⁾와 JPAQ 측정도구를 가지고 1999년 4월에서 1999년 11월동안 연구자

가 인간관계 수업시간에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인 160명에게 MBTI(Form GA)검사를 실시하였고, 한국심리검사연구소에 의해 채점되었다. 회수된 자료들 중 부적합한 검사지를 제외한 다음 연구대상으로 141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들을 중심으로 MBTI의 16개 타입과 성격적응유형 검사간의 관계, MBTI의 선호도와 성격적응유형 검사간의 관계, MBTI의 타입별 역동성과 성격적응유형 검사간의 관계, MBTI의 기질유형과 성격적응유형검사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위한 모델은 <표-6>과 같다.

<표-6> MBTI측정도구와 PAT측정도구간의 연구모델



- 22) Form GA은 자가채점식 방식이며 G와 A 각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A는 automatic의 약자이다. 그리고 G는 MBTI연구소에서 초기의 검사지판인 A에서 B→C→D→E→F→G로 검사지를 업그레이드 할 때 사용하는 기호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검사지G이다.

본 연구에서는 S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²³⁾, 그리고 상담실을 이용하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조사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총 160명의 사례 중 검사성적이 부적합한 사람들을 제외한 남자 71명(50.4%), 여학생 70명(49.6%)으로 구성하였다.

2) 측정도구

(1) MBTI (MBTI Form GA)

MBTI는 C. G. Jung의 성격유형 이론을 근거로 Catherine Briggs와 Isabel Myers가 1941년 이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한 인간이해에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MBTI 한국어판은 김정택, 심혜숙²⁴⁾에 의해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고 표준화되었다. 한국어판 MBTI의 반분 신뢰도는 EI척도는 .77, SN척도는 .81, TF척도는 .78, JP척도는 .82이며, 재검사 신뢰도는 EI척도는 .86, SN척도는 .85, TF척도는 .81, JP척도는 .88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MBTI 영어판과 한국어판간의 구성 타당도는 EI척도는 .91, SN척도는 .90, TF척도는 .90, JP척도는 .91로 나타났고, 문항분석을 통한 변별타당도는 문항비중의 예언도가 E .71, I .76, S .77, N .77, T .71, F .91, J .76, P .86으로 타당도가 검증이 되었다.²⁵⁾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인용 MBTI 한국어판 검사지는 모두 9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채점식 GA형과 자기채점식인 GS형 두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GA형을 사용하였다.

(2) PAT (JPAQ 3rd)²⁶⁾

Paul Ware의 성격적응이론적 배경과 직관적인 인지를 활용하여 반 조인스(Vann Joines)는 성격적응 질문지를 완성하였다(JPAQ 3rd:Joines Personality Adaptation Questionnaire 3rd Edition). 이것은 현재 제3판까지 나왔으며, 본 연구에서는 제3판을 활용하였다. 반 조인스는 표준화 절차를 위해 1차때는 그들 자신들의 적응을 알고 싶어하는 전문가 70명과 전체 개인들 268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의 평균 연령은 37세(최연소자가 13세, 최고령자는 63세)였으며, 남녀 비율은 29%가 남성, 71%는 여성이었다. 남녀 비율의 차이는 상기 언급한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치료에 임하는 남녀 비율의 빈도의 차이를 반영한다. 그리고 2차, 3차에 걸쳐 전체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1408명은 치료 내담자였고, 62명은 정신건강 전문가, 29명은 일반인이었다.

23) 인간관계론을 수강하는 대학생 141명을 의미한다.

24) 김정택, 심혜숙(1990; 44-72).

25) 상계서, p. 75.

26) Joines and Stewart, (2001)가 성격적응유형이론을 발전시키고, 질문지를 만들어 자신의 연구를 위해 정리해 놓은 Free Note를 개인적으로 받은 내용이다.

이를 통한 각 성격적응 신뢰도는 정신분열성(Schizoid)은 0.7871, Antisocial(반사회성)은 0.6780, 편집성(Paranoid)은 0.5934, 수동-공격성(Passive-Aggressive)은 0.7279, 강박신경성(Obsessive-Compulsive)은 0.6196, 및 히스테리성(Hysteric)은 0.6127이다. 그리고 요인분석을 통해 세 개의 생존적 적응과 나머지 세계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내용을 추출하였다.

한국에서는 안범현²⁷⁾이 60명의 장애아동을 둔 어머님을 대상으로 성격적응유형을 검사해 본 결과 신뢰도 Cronbach Alpha=.6931을 나타내었다.

7. 연구결과와 분석

1) 인구사회적 특성

(1) 연령 및 성별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에 대한 결과는 <표-7>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비율은 남 71명(50.4%), 여 70명(49.6%)으로 비슷한 분포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남녀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표-7>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성별	남	여
20-25세	42 (59.1)	40 (57.1)
26-30세	22 (30.9)	24 (34.2)
31세이상	7 (9.8)	6 (8.5)
계	71명(100%)	70명(100%)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은 <표-8>과 같다. 25세 이하가 다수인 82명(58.2%)을 차지하고 있으며 26~30세가 46명(32.6%), 31세 이상이 13명(9.2%)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20~30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7) 안범현(1999; 7).

<표-8>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연령	응답자수
20-25세	82 (58.2%)
26-30세	46 (32.6%)
31세이상	13 (9.2%)
총합계	141명(100%)

2) MBTI 유형별 응답자수

MBTI의 16가지 유형별 응답자는 <표-9>와 같이 다른 유형들보다 ISTJ(24.1%)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국내의 MBTI 보고결과에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NTP성격유형은 본 연구의 대상자 중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INTP유형과 성격적응유형정도의 관계는 파악하지 못했다.

<표-9> MBTI 유형별 응답자수

심리유형	ISTJ	ISFJ	INFJ	INTJ
응답자수	34명	15명	5명	5명
백분율	24.1%	10.6%	7.0%	3.5%
심리유형	ISTP	ISFP	INFP	INTP
응답자수	10명	10명	9명	0명
백분율	7.1%	7.1%	6.4%	0%
심리유형	ESTP	ESFP	ENFP	ENTP
응답자수	9명	7명	6명	4명
백분율	6.4%	5.0%	4.3%	2.8%
심리유형	ESTJ	ESFJ	ENFJ	ENTJ
응답자수	8명	10명	4명	3명
백분율	5.7%	7.1%	2.8%	2.1%

3) PAT 유형별 응답자수

성격적응유형별 유형은 <표-10>와 같다.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유형은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39.7%)이고, 그 다음은 정신분열성적(24.8%) 유형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0여명 이상의 성격적응유형검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기에 성격적응유형에

대한 분포는 비교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내 성격유형 분포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표본수를 대상으로 한 성격적응유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10> 성격적응유형별 빈도

(n=141)

성격적응유형	Schizoid	Antisocial	Paranoid	Passive	Obsessive	Hysteria
N	35명	14명	17명	9명	10명	56명
백분율	24.8%	9.9%	12.1%	6.4%	7.1%	39.7%

4) MBTI와 PAT간의 상관관계

(1) MBTI의 외향형(E)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MBTI의 외향형(E)과 성격적응유형과의 상관관계는 <표-11>과 같다. 선천적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로 향해져 있는 외향성향과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245$,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334$ 로 각각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동공격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256$, 정신분열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542$ 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표-11>에 의하면 외향형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외향형은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외향, 직관, 인식형은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유형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상담 시 외향형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할 경우 <표-5>에 제시했듯이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향, 감정형 클라이언트에게 개입 시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개입문인 감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함정문인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외향, 직관, 인식형의 클라이언트에게 개입 시 개입문인 행동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함정문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표-11> MBTI의 외향형(E)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n=141)

변수	ANTI	HYSTERIC	OBSSESSIVE	PARANOID	PASSIVE	SCHIZOID
E(외향형)	.245**	.334**	-.008	.028	-.256**	-.542**
Sig.	.003	.000	.922	.736	.002	.000

**p<0.01

(2) MBTI의 내향성(I)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MBTI의 내향성(I)과 성격적응유형과의 상관관계는 <표-12>와 같다. 선천적 에너지의 방향이 내부로 향해져 있는 내향성향은 외향성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의 경우 $r=-.250$,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388$ 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동공격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176$, 정신분열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557$ 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초기상담 시 내향성·정신분열성적 성격적응유형을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클라이언트에게 개입 시 정신분열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개입문인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함정문인 감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표-12> MBTI의 내향성(I)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n=141)

변수	ANTI	HYSTERIC	OBSSESSIVE	PARANOID	PASSIVE	SCHIZOID
I(내향성)	-.250**	-.388**	.027	.043	.176*	.557**
Sig.	.002	.000	.744	.608	.033	.000

**p<0.01, *p<0.05

(3) MBTI의 감각형(S)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MBTI의 감각형(S)과 성격적응유형과의 상관관계는 <표-13>와 같다.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r=-.177$,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156$, 수동-공격성적 성격적응의 경우 $r=-.134$ 로 약한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함에 있어 직관보다 감각적 선호가 강할수록 히스테리적, 반사회적, 수동공격성적 성격유형이 약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체적인 정보 수집을 하는 감각적 선호도가 강할수록 정신건강은 건전한 성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표-13> MBTI의 감각형(S)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n=141)

변수	ANTI	HYSTERIC	OBSSESSIVE	PARANOID	PASSIVE	SCHIZOID
S(감각형)	-.156	-.177*	.117	.046	-.134	.111
Sig.	.060	.033	.159	.581	.107	.183

*p<0.05

(4) MBTI의 직관형(N)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MBTI의 직관형(N)과 성격적응유형과의 상관관계는 <표-14>와 같다. 육감에 의존하는 선호성을 지닌 직관형은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의 경우 $r=.175$ 로 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117$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14>에 의하면 직관형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외향형과 반사회적 성격적응유형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에게 초기상담시 개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향, 직관, 인식형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시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개입문인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함정문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표-14> MBTI의 직관형(N)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n=141)

변수	ANTI	HYSTERIC	OBSESSIVE	PARANOID	PASSIVE	SCHIZOID
N(직관형)	.175*	.117	-.085	-.064	-.012	-.040
Sig.	.035	.161	.307	.441	.884	.630

* $p<0.05$

(5) MBTI의 사고형(T)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MBTI의 사고형(T)과 성격적응유형과의 상관관계는 <표-15>와 같다. 판단의 근거로 논리와 정의로움을 지향하는 사고형은 강박신경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290$, 편집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312$ 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고형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사고, 판단형은 강박신경성적 성격적응유형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과는 $r=-.203$ 인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상담시 사고형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고형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시 강박성적 성격적응유형과 편집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개입문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함정문인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표-15> MBTI의 사고형(T)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n=141)

변수	ANTI	HYSTERIC	OBSSESSIVE	PARANOID	PASSIVE	SCHIZOID
T(사고형)	.119	-.203*	.290**	.312**	-.024	.106
Sig.	.151	.014	.000	.000	.777	.201

*p<0.05

(6) MBTI의 감정형(F)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MBTI의 감정형(F)과 성격적응유형과의 상관관계는 <표-16>과 같다.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297$ 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상담시 MBTI 검사에서 외향·감정성향인 클라이언트에게 행동으로 접근하게 되면 함정에 빠지게 되고, 상담이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히스테리성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이 개입문인 감정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표적문인 사고로 유도된다면 이들의 행동을 치료할 수 있고, 많은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표-16> MBTI의 감정형(F)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n=141)

변수	ANTI	HYSTERIC	OBSSESSIVE	PARANOID	PASSIVE	SCHIZOID
F(감정형)	-.050	.297**	-.130	-.155	.124	-.072
Sig.	.550	.000	.347	.088	.421	.074

**p<0.01

(7) MBTI의 판단형(J)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MBTI의 판단형(J)과 성격적응유형과의 상관관계는 <표-17>과 같다.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269$ 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박신경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319$ 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초기상담시 사고형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박성적 성격적응유형과 편집성적 성격적응유형에게 처음부터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개입문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17> MBTI의 판단형(J)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n=141)

변수	ANTI	HYSTERIC	OBSSESSIVE	PARANOID	PASSIVE	SCHIZOID
J(판단형)	-.269**	-.078	.319**	.142	-.067	.149
Sig.	.001	.347	.000	.088	.421	.074

**p<0.01

(8) MBTI의 인식형(P)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MBTI의 인식형(P)과 성격적응유형과의 상관관계는 <표-18>과 같다. 반사회성적 성격적 응 유형의 경우 $r=.311$ 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박신경증적 성격적응유형의 경우 $r=-.368$ 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초기상담 시 인식형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할 때에는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유형 클라이언트의 개입문인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함정문인 사고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표-18> MBTI의 인식형(P)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n=141)

변수	ANTI	HYSTERIC	OBSSESSIVE	PARANOID	PASSIVE	SCHIZOID
P(인식형)	.311**	.036	-.368**	-.179*	.008	-.190*
Sig.	.000	.663	.000	.031	.923	.022

**p<0.01, *p<0.05

(9) MBTI의 각영역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MBTI의 각 영역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는 <표-19>과 같다. MBTI의 외향형, 감정형은 성격적응유형의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향형, 직관형, 인식형은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유형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사고형, 판단형은 강박신경성적 성격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BTI의 선천적인 심리적 경향성들이 후천적인 적응양식을 보이는 성격적응유형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MBTI의 검사결과 외향형, 감정형의 경우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개방문인 감정적인 수준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외향형, 직관형, 인식형의 경우에는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개방문인 행동적인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고형, 판단형의 경우에는 강박신경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개방문인 사고적인 수준으로 접근이 효

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19> MBTI의 각영역과 성격적응유형간의 상관관계

pearson correlation	반사회성	히스테리성	강박성	편집성	수동공격성	분열성
외향형 Sig.	.245** .003	.334** .000	-.008 .922	.028 .736	-.256** .002	-.542** .000
내향형 Sig.	-.250** .002	-.388** .000	.027 .744	.043 .608	.176* .033	.557** .000
감각형 Sig.	-.156 .060	-.177* .033	.117 .159	.046 .581	-.134 .107	.111 .183
직관형 Sig.	.175* .035	.117 .161	-.085 .307	-.064 .441	-.012 .884	-.040 .630
사고형 Sig.	.119 .151	-.203* .014	.290** .000	.312** .000	-.024 .777	.106 .201
감정형 Sig.	-.050 .050	.297** .000	-.130 .347	-.155 .088	.124 .421	-.072 .074
판단형 Sig.	-.269** .001	-.078 .347	.319** .000	.142 .088	-.067 .421	.149 .074
인식형 Sig.	.311** .000	.036 .663	-.368** .000	-.179* .031	.008 .923	-.190* .022

**p<0.01, *p<0.05

5) MBTI와 PAT를 활용한 초기상담개입방안

MBTI와 성격적응유형의 관계분석결과를 토대로 임상사회사업가가 MBTI 검사를 한 클라이언트의 초기상담개입방안은 <표-20>과 같다.

<표-20> MBTI와 성격적응유형을 활용한 초기상담개입방안

	MBTI 검사결과	관계분석 결과	초기상담개입방안
1	E,F성향을 지닌 클라이언트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	감정적인 수준으로 접근
2	E,N,P성향을 지닌 클라이언트	반사회성적 성격 적응유형	행동적인 수준으로 접근
3	T,J성향을 지닌 클라이언트	강박신경성적 성격적응유형	사고적인 수준으로 접근

8.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MBTI측정도구와 PAT 측정도구 검사에서 도출한 성격특성의 관계연구이다.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MBTI와 성격적응유형간의 관계성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MBTI의 외향형, 감정형은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과, MBTI의 외향형, 직관형, 인식형은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유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고형, 판단형은 강박성적 성격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TI의 선천적인 심리적 경향성과 후천적인 적응양식을 보이는 성격적응유형 요소들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MBTI검사만으로도 성격적응유형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MBTI와 성격적응유형의 관계분석결과를 토대로 임상사회사업가가 MBTI 검사를 한 클라이언트의 초기상담개입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향적 감정형 클라이언트인 경우,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개방문인 감정으로 접근하였을 때, 의사소통반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았을 때, MBTI의 심리유형이 외향형, 감정형인 클라이언트의 경우, 히스테리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개방문인 감정으로 접근한다면 의사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면접과 효과적인 관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함정문인 행동으로 접근하였을 때는 의사소통 정도가 현저히 낮아져 원만한 의사소통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 본다. 따라서 임상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접근함에 있어 이들 각각의 개방문과 함정문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요하리라 본다.

두번째 클라이언트 성격유형이 외향적 직관형이고 인식형인 경우, 임상사회사업가가 반사회성적 성격적응유형의 개방문인 행동으로 개입할 때 의사전달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임상사회사업가가 외향적, 직관형, 인식적인 클라이언트들에게 접근할 때 이들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그 후 이들의 감정을 다룬다면 더욱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번째 강박신경성적 성격적응유형과 상관이 있는 사고형, 판단형인 클라이언트와 대면 할 때에는 개방문인 사고로 개입할 때 효과적 의사전달이 가능하다고 나타났다. 강박신경성적 성격적응유형은 사고에 많은 에너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개방문이다. 또한 이 유형의 함정문은 행동이다. 따라서 임상사회사업가가 이 유형의 행동패턴을 바꾸기 위해, 행동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면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이 유형은 개방문인 사고

에서 표적문인 감정으로 움직이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성격유형 이론에 기초한 MBTI를 기본으로 성격적응유형의 개입문(개방문, 표적문, 함정문)으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질 경우, 임상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간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김명권. 1999. “성격유형과 행동특성 비교분석에 따른 인식형 청소년을 위한 MBTI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용일 · 조홍식 · 김연옥. 1996. 『사회사업실천론』 서울: 나남출판사.
- 김정택 · 심혜숙 · 제석봉 편역. 1995. 『MBTI의 개발과 활용』 .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김정택 · 심혜숙. 1990. “성격유형검사(MBT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학』 3(1): 44-72.
- 류태보. 1996. “교류분석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성격기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박종삼. 1999. “심리유형(MBTI)과 성격적응유형의 관계; 임상적 상담 적용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심리유형학』 , 6: 133.
- 박종삼 편저. 1999. 『임상교류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교류분석연구소.
- 심혜숙, 김명권, 1998. “MBTI에 나타난 비행청소년 성격유형과 행동특성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10(1).
- 안범현, 1999.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성격적응유형과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와 상담개입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이부영. 2000.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 이장호. 1990. 『초기상담의 중요성과 기초 면접기법』 .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현수. 2001. 『성격과 행동』 . 서울: 학지사.
- Bennet, E. A. 1983. What Jung Really Said. New York : Schoken Books.
- Joines, V. 1986. “Using Redecision Therapy With Different Personality Adaptations”. Transactional Analysis Journal 16: 153.
- Joines V. and Stewart I. 2001. Personality Adaptation: A New Guide to Psychotherapy Counselling and Problem Solving. Chapel Hill, NC: Life Space Publishing.
- Jung, C. G. 1968. Analytical Psychology-Its Theory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Provost, J. A. 1984. A Casework: Application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 Counseling. Geinsville, FL. : CAPT, Inc.

A Study On The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Between Inborn(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and Acquired(Personality Adaptation Type: PAT) Factors of Personality

Oh, Soo-Hee(Chief Counsellor of Student Counselling Center Soongsil University,
Plural Professor, College of Medicine Pochon CHA University)

The purpose of study is to provide efficient initial approaches for counseling in social work practice settings.

First, it attempt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a personality index based on the theory of psychological typology, and Personality Adaptation Types(PAT) models.

Second, it attempts to develop a counseling method which can be applied to the initial interview, using the paradigm of door to therapy such as "Open Door", "Target Door", and "Trap Door" based on the PAT theory.

The result of the quantitative study showed the correlation between MBTI and PAT as follows: MBTI Extrovert and Feeling(E, F) type was statistically correlated to hysterical PAT.

MBTI Extrovert, Intuition and Perceiving(E, N, P) type was statistically correlated to Obsessive-Compulsive PAT.

In conclusion, this study finds that when a clinical social worker approaches a client with the client's MBTI personality type and an interventional personality adaptation theory approach such as "Open Door", "Target Door", or "Trap Door", the efficiency of communication is increased significantly.

key word : Personality Adaptation Types(PAT), Myers-Brigg's Type Indicator(MBTI), Open Door, Target Door, Trap Door, Personality Counselling